

96.5.10



텔레비전의 미인대회 중계대 앞에 선 젊은 여성들. 사진은 서울방송 주최의 95슈퍼엘리트모델 선발대회 모습.

도마 오른 '미스코리아 중계' 여성단체 반대속 MBC 강행

오는 25일로 예정된 미스코리아선발대회를 앞두고 지상파방송사의 중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성민우회(공동대표 이경숙 등)는 9일 '방송의 미인대회 중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공개토론회를 열어 미인대회 중계의 악영향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이의 방송중계 중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여성민우회는 이에 따라 16~23일에 여성단체연합과 서울지역여대생협의회 등 여성단체들과 함께 미인대회 중계저지운동에 나서는 한편 특히 22~23일에는 문화방송사 앞에서 항의시위 등 대대적인 실행행사까지 계획하고 있다.

그동안 여성단체들이 미인대회 자체를 문제를 삼은 적은 있으나 방송사의 중계를 정면으로 쟁점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단체들이 새삼 방송사의 미인대회 중계에 시비를 걸고 나선 것은 이런 프로들이 여성 차별을 일반화 공식화하는 데 가장 심각한 역기능을 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영국 캐나다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런 부작용 때문에 최소한 지상파가 아닌 케이블채널에서나 이를 중계하고 있다.

이영자 가톨릭대학 교수(사회학)는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미인대회의 중계방송은 우리 사회에서 지배적인 여성 비하의 문화풍토와 이데올로기를 여과없이 재현할 뿐 아니라 실제보다 과장해 대중적 동의와 지지를 유도해 확대재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여성의 육체 부위를 세세하게 수치로 재는 심사 절차를 낱낱이 중계함으로써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비하시키는 굴욕적인 문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흐리게 한다는 것이다.

여성민우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한 모니터보고서를 통해 미인대회 중계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미인대회 양산을 부추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70년대에는 미스코리아선발대회 하나에 그치던 미인대회가 현재 1백여개에 이르게 된 데는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방송의 적극적인 호응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방송사들이 미스코리아 입상자들의 경우 아무런 검증없이 탤런트 진행자 등으로 마구 기용해 '외모가 최고'라는 그릇된 사회풍조를 조장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중계과정에서 사회자가 "아무도 없는 계곡에서 옷을 벗고 목욕하던 중 지나가던 남자가 옷을 벗어 놓은 옆에서 책을 읽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며 후보들을 상대로 **성적인 질문**을 예사로 던지는가 하면 후보의 배꼽 부분을 근접 촬영해 보여주는 등 말초적인 자극에 이르기도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편 문화방송은 예정대로 96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전야제 행사와 당일 대회 실황을 24, 25일 생중계할 방침이다. 김도형 기자